

農村 靑少年의 社會心理的 特性과 營農意志

金 東 一

首席研究員, Ph. D.(社會學), 農村社會研究室

庾 喆 仁

研究員, 農村社會研究室

- I. 營農後繼者와 社會化 過程
- II. 社會變遷과 農村靑少年의 社會心理的 特性
- III. 營農後繼者 育성과 教育의 方向

I. 營農後繼者와 社會化 過程

왜 營農從事者는 필요한 만큼 充員되지 못하며 앞으로의 農家單位의 經營主 확보가 어려운가.

이러한 事實은 농업이라는 職業과 농민의 社會的 位置를 어떻게 규정지어야 하는가라는 문제에서 출발할 수 있다. 즉 영농후계자에 대한 문제는 農業이라는 職業선택과 農民이라는 地位의 계승의 문제이므로 영농후계자의 육성문제는 앞으로의 직업으로서의 농업의 가치를 높이고, 농민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킴으로써 農民의 自我像을 향상시키는 데서 그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

農村靑少年이 스스로 農業을 職業으로 선택할 때 營農後繼는 가능하므로, 이미 형성된 心理的 特性에 기초하여 자기의 직업을 고른다는 '직업 선택 가설(occupational selection hypothesis)' 이나 직업이 人性을 변화시킨다는 '職業의 社會

化 假說(occupational socialization hypothesis)' 모두가 心理的 特性과 職業 次元간의 관계를 보여주므로(Mortimer & Lorence 1979; 1361~1365) 營農 희망과 몇 가지 社會心理的 측면과의 관계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職業을 통해 성공을 추구하는 方法, 즉 職業的 特性에 따라 家族내에서의 社會化 과정에서 강조되는 價値觀에 차이가 있기 마련이므로(Kohn 1969), 현재 農村靑少年의 價値觀을 살펴보면 영농후계자의 자연적인 층원이 왜 힘들 것인가를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다.

II. 社會變遷과 農村靑少年의 社會心理的 特性

현재 진행중인 都市化와 産業化라는 커다란 社會變遷 과정에서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끌어 온 문제점은 첫째, 産業社會化하면서 급속해지 는 社會變遷이 人間에게 미치는 영향이고, 둘째, 社會機能의 分化와 多樣化 및 社會構成員들의 異質化는 社會統合이라는 과제를 점점 어렵고 복잡하게 만든다는 것이다(金東一, 1979: 25).

社會가 급격히 變遷해 가는 과정에서는 無秩序

와 混同과 不安이 따르기 마련이다. 이는 社會 組織 내부의 모든 부문이 동시에 均衡을 이루며 발전하지 못하는 데서 생겨나는 문제이다. 예를 들어 高度經濟成長을 목표로 하여 급속히 産業化되어 가는 우리 나라와 같은 경우, 제일 먼저 産業間의 不均衡을 들 수 있겠다. 이와 관련해서 地域間 所得隔差, 都農間 不均衡도 생긴다.

世代間 職業移動의 機會는 家族의 社會經濟的地位에 따라 달라진다. (Thorner 1974). 韓國農村經濟研究院의 80년 4월 調查¹⁾에서 都農間의 차이를 어느 정도 느끼고 있는가를 아버지의 경우를 가정하여 질문하였다. 즉 '귀하의 아버지가 도시에서 다른 일을 했다면 지금보다 ① 훨씬 좋게 되었을 것이다. ② 약간 좋게 되었을 것이다, ③ 거의 같았을 것이다. ④ 약간 못했을 것이다. ⑤ 훨씬 못했을 것이다'로 질문했을 때, 응답자 188명중 "도시에서 다른 일을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가 56% (①;26%, ②;30%), "못했을 것이다"가 9%, "거의 같았을 것이다"는 35%로 나타났다. 이것은 농촌 出生이라는 사실에서 상대적 위축감을 느끼고 있음을 뜻한다. 또한 5년후의 社會的 주거환경에 대해서 교통, 통신은 생활하기에 불편없을 것이다가 56%인데 비해 교육 시설은 22%가 충분하리라고 예상하며, 가장 큰 도시와의 격차를 느끼고 있는 환경을 보전, 의료, 후생시설로서 18%만이 도시수준과 거의 같은 것으로 내다봤다.

産業化와 같은 社會變遷이 人間에게 주는 영향에 대해서는 社會學者 Eisenstadt(1966)가 이러한 변화는 農村社會의 傳統的 기반을 여지없이 깨뜨리고, 따라서 農村에 사는 農民이나 都市로 밀려온 勞動者들은 이러한 産業國을 향한 과도기에 그들이 종래에 누리던 평온과 안정감을 상실한 채 不安하고 目的을 잃은 생활을 영

위해야 하는 狀況을 잘 묘사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農村 靑少年의 아노미(Anomie)의 상태를 産業社會에서의 出世와 法에 대한 태도로 조사하였다. 그에 대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① 요즘 세상에 출세하려면 집안의 배경이나 돈이 있어야 한다.

② 사람이 출세하는 데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보다 운이 좋아야 한다.

③ 요즘 세상에 법대로 살면 손해본다.

①번 문항에 대해서는 찬성 66%, ②번 문항에 대해서는 찬성 20%, ③번 문항에 대해서는 찬성 39%로 나타났다. 따라서 집안의 배경이나 돈을 社會生活에서 가장 중요하게 느끼고 있어 傳統社會에서의 배경과 産業社會에서의 돈의 價値를 연결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정규적인 학교교육이나 새마을 청소년회의 활동을 통한 비공식 교육훈련을 통해 期待·努力·成就의 단계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한 개인의 장래에 대한 期待와 自我像은 앞으로의 직업선택이나 역할수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Cyert and MacCrimmon 1968) 농촌 청소년들의 營農에 대한 期待와 自我像에 관한 사항 및 그것의 相關關係를 조사했다.

營農에 대한 기대를 묻는 질문은;

당신이 생각하기는 농토가 3,000평 정도 되고 열심히만 노력하면 농사도

① 다른 직업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18%).

② 비교적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27%).

③ 넉넉하게 먹고 살 수 있겠다(40%).

④ 그저 겨우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14%).

⑤ 먹고 살 수도 없을 것이다(1%).

自我像에 대한 질문은;

① 당신은 스스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② 나는 사람들이 왜 사는지 모를 때가 있다.

3,000명 정도의 농사에 대해서 기대하는 정도와 自我像의 관계를 보면 <表 1, 2>와 같다.

表 1 농업기대감과 自我像 I* 單位：%

농업기대감	自我像		
	긍정적	부정적	
上	38.7	51.1	44.5
中	47.2	32.6	40.4
下	14.1	16.3	15.0
計	100.0 (106)	100.0 (86)	100.0 (192)

*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란 생각.

表 2 농업기대감과 自我像 II* 單位：%

농업기대감	自我像		
	긍정적	부정적	
上	39.8	49.5	44.5
中	42.7	38.2	40.4
下	17.5	12.3	15.0
計	100.0 (103)	100.0 (89)	100.0 (192)

* 사람들이 왜 사는지 모르겠다.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느끼는 사람이 농업기대감이 크다는 사실은,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선택 기회가 적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거나, 반대로 부정적인 自我像을 가진 청소년들이 영농종사를 희망하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농업에 대한 기대감도 높고 자기 이미지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청소년은 우리가 조사한 192명중 22%(41명)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미래의 영농종사자에 대해서는 그들이 기대하고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회적 경제적 여건을 조성해 주고 이를 위해서는 그에 부응하는 농업정책의 개발과 시행이 필요하다.

영농의사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自我像을 살펴보면, 자기 자신의 이미지(自我像 I, <表

表 3 영농의지와 自我像 I* 單位：%

自我像	영농의지		
	없다	있다	
긍정적	46.4	58.8	55.2
부정적	53.6	41.2	44.8
計	100.0 (56)	100.0 (136)	100.0 (192)

*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란 생각.

表 4 영농의지와 自我像 II* 單位：%

自我像	영농의지		
	없다	있다	
긍정적	64.3	49.3	53.6
부정적	35.7	50.7	46.4
計	100.0 (56)	100.0 (136)	100.0 (192)

* 사람들이 왜 사는지 모르겠다.

3))와 다른 사람에 投影된 이미지(自我像 II, <表 4>)가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즉 영농의사가 있는 사람의 자신에 대한 이미지는 긍정적이지만, 이웃 사람들의 영농실태를 보고 느끼는 앞으로의 자신의 이미지, 혹은 投影된 이미지는 영농의사가 없는 사람보다 더 부정적이다. 즉, 긍정적인 자기 이미지를 갖고 의욕적인 영농을 결심한 80명(전체의 42%)이 앞으로의 目標가 확실해지고, 그들의 기대가 충족된다고 믿어질 때, 營農後繼者로서의 역할을 해 낼 수 있다. 영농의지가 없는 靑少年들이 왜 사는지에 대한 의문이 적다는 사실은 영농 이외의 다른 일을 계획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영농의지 여부에 따라 현재 生活水準, 원하는 水準, 성취 可能水準 등을 10點 척도로 하여 측정했을 때<表 5>, 영농의지가 없는 靑少年들이 자기 자신이 원하는 수준과 성취가능 수준을 더 낮게 評價하고 있다. 自我像과 관련하여서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간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 이는 이들이 영농 이외의 다른 계획에 대한 확실한 情報나 기회가 충분하지 않거나 뚜렷한 계획과

表 5 영농의지 여부에 따른 생활수준*

	영농의지 없다	영농의지 있다	전체	變量分析	
				F 값	P
현재 생활 수준	5.30	4.84	4.97	3.665	P<0.1
원하는 수준	8.30	8.73	8.61	6.804	P<0.5
성취 가능 수준	7.46	7.82	7.72	3.579	P<0.1
5년전 생활 수준	4.30	4.03	4.11	0.993	P<0.2
	(56명)	(137명)	(193명)		

* 각 수준 측정은 10點 척도.

목표는 없으면서 농사는 짓지 않겠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따라서 농업 이외의 직업에 대한 훈련과 농업을 선택한 靑少年들의 기대감이 충족될 수 있는 농업주변 여건의 확립과 영농기술 습득, 교육의 제공이 필요하다.

Ⅲ. 營農後繼者 育성과 教育의 方向

농민의 離農現狀과 함께 營農 後繼者 문제는 産業化와 都市化하는 社會變遷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변천이 傳統的 社會環境 속에 사는 人間을 혼돈에 빠뜨리며, 不確實性, 無規範性 등의 희생물이 되게 하는 아노미적 상태를 가져왔다는 이론을 토대로 하여 農村 靑少年의 營農人으로서의 기대와 自我像, 그리고 營農意志 등의 상관관계를 살펴 보았다.

아노미 理論을 정립한 뒤르껴(1973)에 의하면 아노미의 구제책을 國民教育을 통한 道德的 權威(moral authority)의 재정립에서 찾으려 했다. 또한 自我像과 영농종사자로서의 역할기대 관계에서 個人은 두 가지 方法으로 自我像을 조정할 수 있다. 첫째는 자기의 目標은 그대로 두고 자기의 資源(resource, 혹은 能力)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둘째는 자기의 能力을 고정시킨 채 目標을 수정하는 것이다(Adams 1963). 예를 들면 자기가 원하는 역할에 필요한 資質을

얻기 위해 훈련을 받는다는지 현재의 능력과 자질에 맞는 역할 즉 職業을 찾는 것이다. 장래의 目標에 대한 期待도 役割에 대한 경험에 의해서 변화 조정될 수 있으므로 영농경험의 量과 質은 영농 의욕과 기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뒤르껴가 갈파한 國民教育의 중요성을 참조하면서 役割期待와 自我像의 관계를 고려할 때, 농촌 靑少年의 훈련과 교육은 더 한층 강조되어야 하고, 그들이 영농에 종사해서 만족한 미래를 낳을 수 있다는 期待感과 意志의 自負心을 불러일으켜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겠다. 이를 위해 현재의 새마을 靑少年會의 활용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이러한 관점에서 새마을 靑少年會의 方向이 세워져야 한다.

註 1. 調查方法과 調查對象者의 特性은 金東一 外, 「營農後繼者 育成方案」, 1980 參照.

參 考 文 獻

金東一, "1979 社會變遷과 아노미," 「農村經濟」, 第2卷第4號, 韓國農村經濟研究院.
 金東一, 庚喆仁, 朴修一, 「營農後繼者 育成方案」, 研究報告 11, 1980 韓國農村經濟研究院.
 Adams, J.S, 1963, "Toward an Understanding of Inequity," *Journal of Abnormal Social Psychology*, 67; 422-436.
 Cyert, R. M. and K.R. MacCrimmon, 1968, *Organization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2nd ed. (Lindzey & Aronson eds.) Vol. I, pp.568-611, Reading; Addison-Wesley Publishing Co., Inc.
 Durkheim, Emile, 1973, *Moral Education*, New York; Free Press.
 Eisenstadt, S.N., 1966, *Modernization: Protest and Change*,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Kohn, Melvin L. 1969 *Class and Conformity: A Study in Values*, Homewood, Ill.; Dorsey.
 Mortimer, J.T. and Jon Lorence, 1979, "Work Experience and Occupational Value Socialization : A Longitudinal Study," *AJS*, Vol. 84, no. 6, pp.1361-1387.
 Thomas, D. Woods, 1955, "Sociological Aspects of the Decision Making Process," *Journal of Farm Economics*, Vol. 37, no. 5, pp.1115-1118.
 Thorner, Daniel 1974 Peasantry,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